

# 쇄신은 없고 설화까지...KIA '논란의 가을'

(舌禍)



### 일부 선수 호랑이 가족 한마당서 팬 외모 언급 구설수 마무리 캠프 일본으로... APBC 소집·호주리그 참가도 가을야구 실패 돌아 보고 내년 시즌 전진 위한 워밍업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하는 KIA 타이거즈가 '논란의 가을'을 보내고 있다. KIA는 5강에서 탈락하면서 약속했던 포스트 시즌 대신 2024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마무리캠프 선수단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김중국 감독이 이끄는 KIA 캠프단은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다. KIA는 1일부터 28일까지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하면서 실패의 시즌을 돌아보고, 전진을 위한 워밍업을 하게 된다. 5일에는 태극마크를 단 이의리·최지민·정해영

(이상 투수)·김도영(내야수)이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대회 준비를 위해 대구로 간다. 대표팀에 소집된 4명의 선수는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한 뒤, 14일 대회가 열리는 일본으로 떠난다. 이어 호주행 비행기가 뜬다. 김기훈·김현수·홍원빈·곽도규(이상 투수)·박민(내야수) 등 5명이 캔버라 캐번리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 참가해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총 40경기에 출전한다. 남의 '가을 잔치'를 지켜보면서 반등의 시즌을 위

해 칼을 갈아야 하지만 팀 안팎이 어수선하다. 시즌이 끝난 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변화 없이 2024시즌이 준비되고 있다. 5강 탈락이라는 결과와 함께 과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에 부족했지만 '김중국호'는 큰 틀을 유지한 채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투수 코치진의 변화만 있었다. 서재용, 광정철 코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KIA는 정재훈, 이동걸 코치 체제로 오키나와 캠프를 치른다. 시즌 중반에도 투수 코치 자리만 바꿨던 KIA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마준수·이민호를 주면서 '면피성 교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우승 감독이자 올 시즌 3위를 이끌었던 SSG 랜더스의 김원형 감독이 2년의 계약을 남겨두고도 '쇄신'을 이유로 31일 결별되면서 KIA의 조용한 행보가 더 부각되고 있다. 선수들의 '입'도 문제가 됐다.

KIA는 지난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1000명의 팬을 초청해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최고참 최형우부터 2024시즌까지 선수단이 총 출동한 이번 행사에는 김중국 감독도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김중국 감독은 '가을 잔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이의리와 정해영 등은 몸을 아끼지 않는 장기자랑 무대를 펼치면서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분 좋은 행사였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이 도열해 행사에 참가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자리에서 몇몇 선수가 참가 팬의 외모를 언급하는 등 잘못된 언행을 했고, 관련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

산됐다. 이에 심재학 단장은 사과문을 통해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몇몇 선수들의 그릇된 언행에 대해 KIA 타이거즈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KIA 타이거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선수단 윤리 교육 등에 더욱 힘쓰고, 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팬심이 들끓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던 시즌,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장정석 전 단장의 '금품 요구 논란'으로 인한 해임, 선수들의 졸부상, 야시안게임 악몽,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5강 탈락에 이어 선수들의 언행 논란까지... KIA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발디비아 K리그2 37라운드 'M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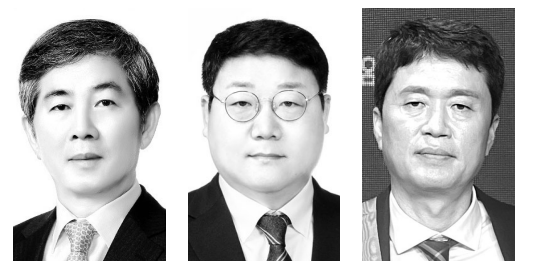


발디비아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 K리그2 37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발디비아는 지난 2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북청주FC 경기에서 열린 K리그2 37라운드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전남 37 플라나의 선제골을 도운 발디비아는 1-0으로 앞선 후반 5분에는 이용재에게 패스를 하면서 두 번째 도움을 올렸다. 발디비아의 활약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전남은 후반 18분 나온 노건우의 득점까지 더해 3-0 승리를 거뒀다. 무실점 승리를 완성한 전남 골키퍼 안준수는 베스트 11이 됐다. 안준수는 이날 21개의 슈팅(유효 슈팅 9개)을 퍼붓는 충북청주의 공세를 막으면서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더한 전남(승점 50)은 5위 경남FC(승점 53)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하면서 '5강' 불씨를 살렸다. 전남은 오는 12일 부산아이파크와의 홈 경기에 이어 26일 부천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리게 된다. 37라운드 K리그2 베스트 매치는 2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안산그린시티 경기 선정됐다. 이날 경남은 그레이슨, 조항기, 이준재, 송홍민의 득점으로 윤주태의 멀티골이 나온 안산을 4-2로 꺾었다. 한편 광주FC를 울린 인천유나이티드의 신에 최우진과 김민석은 K리그2 35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최우진과 김민석은 지난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경기에서 각각 후반 30분과 후반 38분 골을 넣으면서 인천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최우진은 이날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다. 광주는 인천 신예들의 활약에 막혀 4연승 질주에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용훈 전 광주시검도회장 체육유공자 대통령상 공로상

### 검도의 대중화·세계화 기여 광주체고 송철석 교사 청룡장 안세영 아버지 '장한 아버지상'



최용훈 안정현 송철석

최용훈 전 광주시검도회장이 체육 유공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1일 서울시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 61회 대한민국체육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2023년 체육발전 체육유공자 대통령상 공로상 부문에 최용훈 전 광주시검도회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전문체육 진흥 지방 체육 육성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검도회장을 지내며 지역 검도 종목 발전은 물론 국가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지역 내 학생선수 및 검도팀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훈련 장비 보급,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등 선수 육성 환경을 개선해 왔고, 학교법인 유당학원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검도 저변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 중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는 27회째를 이어가는 대회로 검도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검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검도 세계화에도 일조했다. 일

본 dots리현(1997년-1999년), 구마모토현(2007년), 호주 멜버른 대학교 검도클럽(2017년~현재) 등과 국제 친선교류를 추진해 검도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 전 회장은 "비인기 종목인 검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도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힘써왔는데 상까지 받게 돼 행복하다"며 "광주체육의 미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육인을 위해 봉사하는 후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양궁 선수 출신 송철석(광주체고) 교사 청룡장을 받았다. 송 교사는 20여 년간 광주체육중·고등학교 등에서 재직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노력했다. 지난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코치로 출전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황재우 아시아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에 오른 안세영(삼성생명)의 아버지 안정현(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씨는 '체육인의 장한 아버지상'을 수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 4전5기

### PBA 다섯번째 도전 만에 첫 우승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휴온스·46)이 프로당구 PBA 데뷔 다섯번째 도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우승을 일궜다. 최성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킥박스 PBA 스타디움에서 끝난 프로당구 2023-2024시즌 5차전 '휴온스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팀 동료인 하비에르 팔라손(스페인·35)을 세트 점수 4-1(15-11 15-9 9-15 15-8 15-1)로 제압하고 프로 통산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성원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3쿠션 세계 선수권대회와 3쿠션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화려했던 아마추어 무대를 뒤로 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들지 5개월 만에 정상을 밟았다. 이전 4개 투어 대회 연속 1회전에서 고배를 마

셨으나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받고 랭킹포인트 10만점을 얻어 시즌 잔류를 확정했다. 최성은 1세트 2이닝에서 하이런 9점을 폭발하며 기선을 제압한 뒤 2세트에서도 5번의 백크샷 성공으로 10점을 획득해 승기를 잡았다. 3세트를 내주고 맞선 4세트가 승부처였다. 8-7로 앞선 팔라손이 4이닝부터 연속 공타로 주중환 사이 최성원이 5이닝부터 8점을 추가했다. 이어 최성원은 승부사다리 5세트 3이닝에서 하이런 12점을 몰아쳐 화끈하게 우승을 결정지었다. 이번 대회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엘벵트랭킹'(상금 400만원)은 64강전에서 강성호를 상대로 PBA 역대 2위 기록인 에버리지 5.625를 기록한 다비드 사파라(스페인-블루원리조트)가 받았다. /연합뉴스

## 장애인체전 전국 최초 전 종목 인터넷 중계

### 3~8일 전남 일원에서 개최 공중파 TV 3종목·온라인 31종목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최초로 전 종목 인터넷으로 중계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 전남에서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공중파 TV 중계로 3개 종목이, 온라인으로 31개 종목이

중계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그동안 몇몇 종목만 온라인을 통해 중계됐지만, 전 종목을 TV와 온라인을 병행해 중계하는 것은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이 처음이다. 오는 3일 열리는 개회식은 KBS 1TV에서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에 생중계된다. 또 KBS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배드민턴, 골볼, 좌식배구 등 3개 주요 종목의 경기를 공중파 TV로 중계하고 온라인으로도 육상, 축구, 수영, 테니스, 탁구 등 31개 종목을 중계해 시청자들이 인방과 모바일·PC에서도 경기장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온라인 중계 경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중계 홈페이지(http://kpc-tv.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14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의 생생한 경기장면을 국민에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등과 협의를 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장애인 선수가 장애를 수용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의 무대인 전국장애인체전에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LOTTE CINEMA | 증장로관

##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앵그리 애니
- 4관 톡 투 미
- 5관 소년들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키리에의 노래
- 7관 씨네커플 30일
- 8관 씨네커플 소년들, 용감한 시인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솔로이스츠 & 이안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시옹**  
 일시 : 2023-11-12(일)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